###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제 ( ) 선택

-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규범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 바람직한 삶의 이상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도덕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와 용법을 분석하고 도덕적 논증에 적용되는 추론의 규칙과 인식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명제의 추론 가능성과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 규범과 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③ (나): 사회의 관습과 규범을 관찰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③ (나), 사외의 선급과 파립을 선절이어 직선적으로 기울이는 것이나 ④ (-1), 크리이 모리 모레 레코스 이를 그레고 되어 이 레시되고 되나
  - ④ (나):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도더 혀사의 이과 과계를 격혀과하저 이로 선명하는
  - ⑤ (가)와 (나):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경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잡: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었는가를 깨달았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음을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正思惟] 지혜로써 통찰했다.
  - 을: 진인(眞人)은 삶을 기뻐할 줄 모르고 죽음을 미워할 줄도 모른다. 태어남을 피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무심히 자연을 따라가고 무심히 자연을 따라올 뿐이다.
  - ① 갑: 삶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輪廻)는 인간에게만 적용된다.
  - ② 갑: 삶과 죽음의 영원한 반복은 연기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③ 을: 삶과 죽음은 기(氣)로 연결되어 있을 뿐 순환하지는 않는다.
  - ④ 을:도(道)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변화 원리는 서로 다르지 않다.
  - ⑤ 갑과 을: 현세의 삶에서 죽음의 이치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 평화는 불가능하고, 종교 간 평화 없이 국가 간 평화도 불가능하며, 다른 종교에 대한 연구 없이 종교 간 대화는 불가능하다. 대화의 중단은 전쟁을 초래했다. 대화가 실패하면 억압이 시작되었고 권력자들의 힘이 지배했다. 대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자기 종교의 교리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단자에 대한 배척을 혐오한다.

- ① 종교 간 대화가 국가 간 평화의 선결 과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② 종교 간 차이가 종교 간 대화를 언제나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종교 간 소통에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까지 요청되지는 않는다.
- ④ 종교 간 교리를 통합하지 않으면 결코 관용을 실천할 수 없다.
- ⑤ 종교 간 대화의 실패가 정치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최신 유행을 반영하여 빠르게 옷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소비 양식인 패스트패션은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해 줄 수 있지만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을: 동의합니다. 물론 패스트패션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환경을 생각하면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 갑: 아닙니다. 패스트패션 기업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의 규제는 필수적이지만 제품 생산까지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 을: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 자체를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①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가?
  - ② 패스트패션은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가?
  - ③ 패스트패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 ④ 패스트패션은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가?
  - ⑤ 패스트패션 제품 생산을 막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가?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동물 실험을 자행하면서, 이를 인간의 복지 증진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이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 실험이든 궁극적으로는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기에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 생체 실험이 인간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처럼 동물 실험도 동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다른 존재의 복지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① 동물 실험은 인간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폐지해야 한다.
- ② 동물 실험은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경험적 근거로 합리화해야 한다.
- ③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물 실험은 정의에 부합한다. ④ 동물 실험이 도덕적으로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 ⑤ 동물 실험과 인간 생체 실험을 금지해야 하는 근거는 동일하다.

# 2 (생활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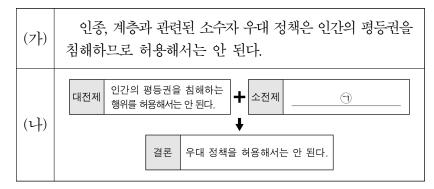
# 사회탐구 영역

- 6.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할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대지 윤리는 인간의 역할을 생명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 을: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보 기>-

- ㄱ. 인간은 토지를 단지 자원으로만 이용해서는 안 된다.
- ㄴ. 생명 없는 존재의 파괴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경우는 없다.
- 다. 자연에 속하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개별 존재가 있다.
- 리.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 불가능하다.
- ① ¬, ∟
- ② 7, ⊏
- ③ ㄴ, ㄹ

- ④ 7, ⊏, ㄹ
- ⑤ ㄴ, ㄷ, ㄹ
- **7.**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①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우대 정책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킨다.
- ② 우대 정책은 실질적 기회 균등 실현에 기여한다.
- ③ 우대 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지 못한다.
- ④ 우대 정책은 수혜자가 아닌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 ⑤ 우대 정책은 인종과 계층 간 화합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새로운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다. "미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 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다. "지상에서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위협하지 말라." 따라서 우리에게는 현 세대의 존재를 위해 미래 세대를 감히 위태롭게 할 권리가 없다.

- ① 새로운 윤리에 따른 책임의 범위는 전 지구적으로 확장된다.
- ②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은 총체적이고 호혜적이다.
- ③ 발생하지 않은 사태는 윤리적 고려와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 ④ 책임 윤리는 행위되어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 ⑤ 행위의 결과에 대한 공포는 현 세대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킨다.

-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갑: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부당한 것이 될 수 없다. 리바이어던이 없는 곳에서는 법과 정의 그리고 소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 을: 인간이 공동체를 결성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의 소유 보존이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는 이를 위한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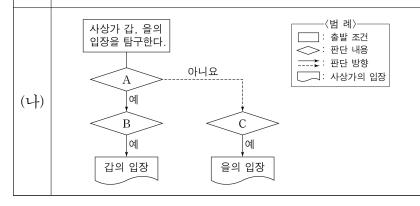
- ㄱ. 갑: 절대 권력은 시민의 소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ㄴ. 갑: 인간 본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일 수밖에 없다.
- ㄷ.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다.
- ① 7. ∟

(7)

- ② ¬, ⊏
- ③ ㄷ, ㄹ

- ④ 기, ㄴ, ㄹ
- ⑤ ㄴ, ㄷ, ㄹ

-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정의의 원칙은 공정한 최초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원칙이다. 우연적 사실들에 관한 지식을 배제한 조건에서 합의한 원칙은 정의로운 것이다.
  - 을: 소유 권리론은 취득, 이전(移轉) 및 교정 과정을 주제로 삼는다. 그 역할이 개인의 소유 권리 보호에 국한된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당한 국가이다.



----<보 기>---

- □. A: 공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분배는 모두 정의로운가?
- L. B: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는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가?
- 다. C: 최소 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가?
- 리. C: 취득 원칙과 이전 원칙을 충족했다면 그 소유는 모두 정의로운가?
- ① 7, L ② 7, C ③ L, C ④ L, Z ⑤ C, Z

# 사회탐구 영역

### 생활과 윤리 3

11.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로 인해 산출되는 쾌락과 고통의 양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쾌락은 그 양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

### <문제 상황>

한 지역에서 재해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긴급히 투입된 구조대원 A는 한정된 장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우선 구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② 신체의 고통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없음을 고려하세요.
- ③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의 총량을 계산하세요.
- ④ 구조의 의무는 결과와 무관한 정언 명령임을 명심하세요.
- 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없음을 유념하세요.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가 침해될 때 시민 불복종으로 반대한다면 기본적 자유는 더 확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가 정의감을 갖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합당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뜻한다.

### ---<보 기>-

- ㄱ. 국가의 처벌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없다.
- 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시민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따른 숙고를 권력자들에게 촉구한다.
- 리.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전제하므로 소수자가 주체일 수는 없다.
- ① 7, L ② 7, C ③ L, C ④ L, Z ⑤ C, Z
-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생산자가 자신의 소질에 맞지 않는데도 수호자의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국가에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올바름이므로, 각자는 자기 역할에 맞는 덕을 갖추어야 한다.
  - 을: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마련해 주어 부모 공양과 처자식 부양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풍년에 배부르고 흉년에 죽음을 면하게 한다. 그 연후에야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 ① 갑: 시민의 사회적 지위 배정에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 ② 갑: 생산자와 수호자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자급자족해야 한다.
  - ③ 을: 다스림의 근본은 의로움[義]보다 이로움[利]에 두어야 한다.
  - ④ 을: 경제적 안정은 백성의 도덕적 인격 수양의 조건이 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에 따라 역할 교환이 가능하다.

14.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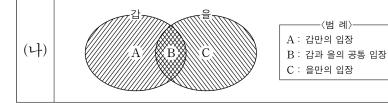
OO 신문 OOOO년 OO월 OO일

#### 칸런

뉴미디어가 확산되면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소비하고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인 미디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다수의 구독자를 확보한 전문 운영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참신하고 다채로운 소재와 유형의 정보들이 생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선정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강력한 법적 처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 강조하다 보면 자칫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 법적 제재도 실효성이 있지만, 매체 이용자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매체 이용자들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② 전문 운영자들의 등장으로 유해 정보가 감소하고 있다.
- ③ 뉴미디어 확산은 창작물의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 ④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의 제재는 어떤 효과도 거둘 수 없다.
- ⑤ 뉴미디어 확산으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다.

-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종신 노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 (가) 을: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



### -<보 기>-

- □. A: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 L. B: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
- C. B: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 리. C: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
- ① 7, L ② 7, C ③ L, C ④ L, E ⑤ C, E

# 4 (생활과 윤리)

# 사회탐구 영역

-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사람이 되어서 인(仁)하지 못하면 예(禮)를 지킨들 무엇하겠는가? 사람이 되어서 인하지 못하면 음악[樂]을 한들 무엇하겠는가? 예는 사치스럽기보다 검소한 것이 낫다.
  - 을: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으니[小國寡民] 이들은 음식을 달게 먹고 옷은 꾸밈없이 입으며 편안히 살아간다. 이웃 나라에서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평생 오고 갈 일이 없다.

#### ----<보 기>--

- つ. 갑: 충서(忠恕)를 통한 인의 확장은 천하의 도(道)를 이루게 한다.し. 을: 성인(聖人)의 다스림은 백성을 저절로 소박하게 한다.
- ㄷ. 을: 무위(無爲)의 삶을 통해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ㄹ. 갑과 을: 분별적 지혜를 발휘하여 도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 ① 7, 6 ② 7, 6 ③ 6, 6 ④ 6, 8 ⑤ 6, 8
-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추함, 나쁜 리듬, 부조화는 나쁜 말씨와 나쁜 성품을 닮은 반면, 우아함과 고상함은 절제 있고 좋은 성품을 닮은 것이다. 우리는 시인들로 하여금 좋은 성품의 상(像)을 시에 새겨 넣도록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의 성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인들을 찾아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과의 닮음과 친근함 그리고 조화로 이끌리도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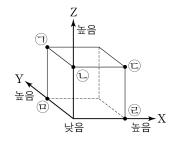
- ① 예술은 도덕의 영역 밖에 있는 예술가들의 독자적 활동이어야 한다.
- ② 예술 작품에 도덕적 가치가 반영되었는지는 대중이 결정해야 한다.
- ③ 예술은 보편적 진리의 기준과 무관한 순수한 창작 활동이어야 한다.
- ④ 예술에 대한 검열은 예술의 우아함을 훼손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 ⑤ 예술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참된 아름다움에 동화되도록 해야 한다.
-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갑: 국제 정치는 자국의 국력을 증강하며 타국의 국력을 감소 시키려는 계속적인 노력이다.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에게 보편적이다.
  - 을: 국가 간 제약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갑: 주권보다 상위의 국제적 권위가 분쟁 해결에 필수적이다.
  - ② 갑: 모든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세력 균형의 보편적 실현이다.
  - ③ 을: 영원한 평화는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으로 완성된다.
  - ④ 을 : 평화 연맹 가입국은 국제법의 적용 없이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질서 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것은 아니다.
  - 을: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을 죽게 방치하고 있다. 이는 살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으나 결과가 나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윤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

### --<보 기>-

- 그. 갑: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나. 을: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 악인 것은 아니다.
- C. 을: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D. 갑과 을: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①~①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대북 지원은 한 민족으로서 동포에 대한 당연한 의무이다. 대북 지원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일 뿐, 분단 비용 절감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나)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며, 동포로서 가져야 할 의무도 아니다. 대북 지원은 분단 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만 의의가 있을 뿐이다.



- X: 대북 지원이 한 민족으로서의 당위임을 강조 하는 정도
- Y: 대북 지원을 통한 분단 비용 절감 효과를 강조 하는 정도
- Z: 대북 지원이 인도주의적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1 7 2 5 9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